

보도시점 2026. 9. 16.(수) 13:30 배포 2026. 9. 16.(수) 13:30

출판 분야 '27년 정부안 645억 원 편성, 출판계와 지원 방향 논의

- 9. 16.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 주재
- 출판 분야 예산 2년 연속 큰 폭 확대, 출판 지식재산(IP)·지역서점·독서문화 등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6일(수),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출판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출판계와 공유한다. 아울러 확보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제3차 회의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김태현 회장과 밀리의서재 정재욱 대표이사가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해 출판계와 디지털 독서 분야의 현장 의견을 더한다.

출판 분야 '27년 정부 예산안 처음으로 600억 원대 돌파, 출판콘텐츠 지식재산(IP) 확산부터 지역서점·독서·수출까지 분야별 맞춤 지원

올해 출판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9% 늘어나 처음으로 500억 원대를 넘어섰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확대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645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케이-콘텐츠'의 뿌리인 출판 지식재산(IP)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출판산업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케이-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5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우수한 출판 지식재산(IP)의 거래와 영화·방송·공연 등 2차 저작화를 지원하고, 학생과 청년 창작자에게는 2차 저작화 초기 기획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웹소설 분야도 기존 번역 중심의 지원

에서 더 나아가 수출상담회와 시상식(어워즈) 개최, 수상작 마케팅 지원 등 특화 수출지원을 새롭게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힌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138억 원으로 84%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시작한 ‘인생서점’과 ‘심야책방’ 참여 서점을 340곳에서 470여 곳으로 확대한다. 지역독서문화의 거점인 지역서점과 공공·학교 도서관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해 전국에서 70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판법」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도서관 공동납품 물류비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독서 문화 확산과 우리 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우리 출판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여행·취미 등 일상과 연계한 독서 캠페인 지원 예산도 올해 9억 원에서 내년 19억 원으로 늘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급력을 높인다. ‘케이-북 글로벌 100 사업’도 올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해 번역부터 수출 상담, 현지 마케팅까지 우리 책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도서 지원 확대로 청년층 독서 문화 확산과 출판사·지역서점 등 출판생태계에 활력

문체부는 올해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서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도서 구매 한도를 수도권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해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늘리고, 구매할 수 있는 도서도 문화예술·인문 등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문체부와 출판계는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출판산업의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내년도 출판 분야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만큼, 이제는 확보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도 살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개요 및 출판 분과 위원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선아 (044-203-3281)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044-203-3287)
		담당자	사무관	서연경 (044-203-3285)



□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성격) 문체부 장관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 (명칭)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훈령 제588호) 근거
- (구성) 위원장(위원 중 장관 임명), 위원(분야별 업계, 학계 등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3명으로 구성 / 1년, 연임 가능
- (분과 : 11개) ①문학, ②연극, ③뮤지컬, ④클래식음악·국악·무용, ⑤미술, ⑥대중음악, ⑦영화·영상, ⑧게임, ⑨웹툰, ⑩애니메이션, ⑪출판
- (운영) 케이-컬처 달성을 위한 아젠다, 분과별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자문, 기존 회의 안전 형식 탈피해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
 -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수시 운영

□ **출판분과 위원 구성**(가나다순)

성명	현 소속(직업)
권태완	■ KW북스 대표이사
김소영	■ 출판사 문학동네 대표이사
김태헌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형보	■ 출판사 어크로스 대표이사
김환철	■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백다흠	■ 출판사 은행나무 편집장
이대건	■ 전국동네책방 네트워크 회장
정재욱	■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
허정도	■ 교보문고 대표이사
홍영완	■ 한국출판인회의 회장